

# FTA 시대에 중국 경제의 성장둔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Effect Analysis of Korea Economic about the Growth Slowdown of China Economic under FTA

김경희(Kyoung-Hee Kim)

신한대학교 글로벌통상경영학과 교수 주저자

유승균(Seung-Gyun Yoo)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초빙교수 교신저자

## 목 차

- |                                |          |
|--------------------------------|----------|
| I. 서론                          | V. 결론    |
| II. 금융위기 이후 중국경제 현황과 전망        | 참고문헌     |
| III. 중국경제의 성장둔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ABSTRACT |
| IV. 중국의 성장 둔화에 따른 한국 경제의 대응방안  |          |

## 국문초록

2014년11월10일 한국과 중국은 FTA체결을 하였다. 세계의 공장 중국으로의 진출이 더욱 더 용이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경제 성장 둔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추이와 향후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고, 중국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변화 조짐들을 경제 성장률 감소, 가공무역 비중 하락, 그리고 양 국가 간 품목별 경쟁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중국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국 경제가 대응해야 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경쟁력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무역수지기여도지수, 무역특화도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주제어** : 중국경제 성장둔화, 가공무역비중, 무역수지기여도지수, 무역특화도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

\* 본 논문은 신한대학교 교내학술지원연구비로 작성된 논문임을 밝힙니다.

## I. 서론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 경착륙을 예견하는 보도가 연일 발표되면서 총수출 25%를 넘나드는 한국 기업들의 불안감은 늘어만 가고 있는 상황에서 2014년 11월10일자 한·중 FTA 타결 소식은 양국 모두에게 커다란 의의를 전해주고 있다. 한·중 FTA는 2005년 민간공동연구가 1,2차에 걸쳐 시작되었으며, 2007년 3월22일부터 2008년 6월11일까지 5차에 걸쳐 FTA 산·관·학 공동연구가 진행되었다. 이후 2010년 9월28일 1차 사전협의를 거쳐 2012년 5월14일 제1차 협상을 북경에서 개최하면서 2014년 11월6일까지 14차례 협상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11월10일 한·중 FTA는 타결되었으며, 이렇게 타결된 한·중 FTA을 두고 13억 시장의 무역 빗장이 풀렸다고 언론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 모두에게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 경제가 서서히 성장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수출입 비중이 가장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중 FTA가 체결되었다고는 하지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게 되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이라는 예측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시스템을 활용하였으며, IMF, WTO 등의 기관 통계 자료도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II장에서 금융위기를 전후로 해서 중국 경제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성장둔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 성장률 둔화, 가공무역 비중 감소, 양 국가 간 품목별 경쟁관계를 무역수지기여도지수, 무역특화도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 등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IV장은 중국 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한국 경제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V장을 결론으로 맺고자 한다.

## II. 금융위기 전후 중국경제 현황과 전망

### 1. 중국 경제 성장을 추이와 무역동향

#### 1) 중국 경제 성장을 추이

중국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12차 5개년 계획 기간 중에 있다. 이 기간 중 중국의 거시경제지표인 GDP 연평균 성장률을 7%로 하향 조정하면서 전반적으로 물가안정 유지에 초점을 두는 경제정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무역수지 균형 달성을 목표로 두고 있으며 5년간 도시 신규 일자리를 4,500만개 창출하고 도시 지역 실업률도 5% 이내로 통제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GDP 대비 서비스업의 비중은 4%p, 7대 전략적 신흥 산업을 적극 육성함과 동시에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 하에서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경제 성장률이 주춤하기 시작하면서 평균 10%를 상회하던 경제 성장률이 최근 7%대에 도달하였다. 또한 GDP 대비 수출 비중도 매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7년도에 35.1%였던 비중이 2013년도에는 23.4%로 무려 11.7%나 감소하였다.(대한상공회의소(2014))<sup>1)</sup> 이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선진국 경제침체로 외부 수요가 감소하면서 수출 부문이 성장에 약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중국은 2011년까지 연간 9%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다가 2012년부터 7%로 떨어져서 2014년 3분기 현재 7%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국이 12차 5개년 계획기간 중 목표한 7%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아니겠지만, 중국과 교역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제적 타격이 적잖게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의 경우 중국과의 교역규모가 미국보다 더 크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성장률 경착륙(또는 연착륙)이 발생했을 때 한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표 1〉 중국의 경제성장률

(단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상반기	1Q	2Q	3Q
경제성장률	9.6	9.1	10.4	9.3	7.7	7.7	7.5	7.4	7.5	7.3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net)

1) GDP 대비 수출비중(CEIC, %), 35.1(07년)→31.8(08년)→23.5(09년)→26.6(10년)→26.1(11년)→24.4(12년)→23.4(13년),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중국의 주요 경제환경 변화와 기업의 대응”, 2014.8월 [KCCI 해외 경제 동향 No.2], p.11

## 2) 중국의 대외 무역 동향

중국의 경제성장률 감소와 함께 대외 무역에서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의 대외 무역 동향을 살펴본 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해 중국의 수출입은 전년 대비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무역수지 역시 34.4%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2010년부터 무역규모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3년 수출입액은 각각 22,108억 달러, 19,415억 달러(무역수지 2,693억 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7.8%, 6.8% 증가하였으나 평균 10%를 넘지 못하였다. 2014년 9월 현재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누계) 5.1% 증가한 16,972억 달러이고, 수입액은 전년동월대비(누계) 2.1% 증가한 14,666억 달러로써 수출입 총액이 3.7% 증가한 31,63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표 2〉 중국의 수출입 현황

(단위: 억 달러,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출입총액	25,633	22,075	29,740	36,421	38,668	41,523
	(17.9)	(-13.9)	(34.7)	(22.5)	(6.2)	(7.4)
수출액	14,289	12,020	15,784	18,993	20,501	22,108
	(17.3)	(-15.9)	(31.3)	(20.3)	(7.9)	(7.8)
수입액	11,315	10,039	13,939	17,416	18,173	19,415
	(18.5)	(-11.3)	(38.9)	(24.9)	(4.3)	(6.8)
무역수지	2,974	1,982	1,845	1,577	2,328	2,693
	(13.9)	(-34.4)	(-7.2)	(-14.5)	(49.0)	(15.7)

주: ( )안은 전년(동기)대비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net)

품목별 수출입 규모를 살펴보면, 2013년 현재 주요 수출 품목은 전기기기제품(85), 기계류 및 부분품(84), 방직품(61), 가구제품(94), 정밀기기(90) 등이고 수입 품목은 전기기기제품(85), 광물성연료(27), 기계류 및 부분품(84), 광·슬랙·회(26), 정밀기기(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수출입 품목 중 2000년대 들어서서 2014년 9월 현재까지도 1~5위의 수출 품목은 HS 코드 85, 84, 61, 94, 90 등이고, 수입 품목은 85, 27, 84, 26, 90 등으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5, 84, 90 등의 품목은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2013년 중국의 10대 수출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수출			수입		
	품목	금액	증가율	품목	금액	증가율
1	전기기와 부분품(85)	561,755	15.2	전기기와 부분품(85)	439,080	15.1
2	기계류 및 부분품(84)	383,332	1.9	광물성연료(27)	314,490	0.9
3	방직품(61)	96,814	11.2	기계류 및 부분품(84)	170,647	-6.2
4	가구 및 부속품(94)	86,438	10.9	광,슬랙, 회(26)	148,232	10.9
5	정밀기기(90)	74,690	2.6	정밀기기(90)	107,718	1.3
6	의류와 부속품(62)	68,275	11.5	-(98)*	97,016	41.1
7	플라스틱제품(39)	61,778	11.9	차량 및 부속품(87)	74,138	5.0
8	차량 및 부속품(87)	58,589	6.2	플라스틱제품(39)	72,402	4.2
9	철강제품(73)	57,374	2.1	유기화학품(29)	65,991	8.3
10	귀금속류(71)	50,104	10.2	동제품(74)	50,392	-7.7

주: \* -(98)은 중국 HS코드에 품목명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으로 처리했음.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net)

이와 같은 품목별 수출입 동향을 통해 2014년 9월 현재 중국의 주요 수출입액 기준으로 상대국을 살펴보면, 미국, 홍콩, 일본, 한국, 독일 순으로 수출을 하고 있으며 수입국은 한국, 일본, 미국, 대만, 독일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순위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변동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과의 교역에서 중국은 전년대비 8.3%가 증가한 72,451백만 달러를 수출했고, 수입은 7.3% 증가한 140,700백만 달러 수입하였다. 즉 중국은 한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액으로만 봤을 때 수출보다 수입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4년 9월 현재 중국에서 교역국으로써 한국은 4위 수출국이면서 1위 수입국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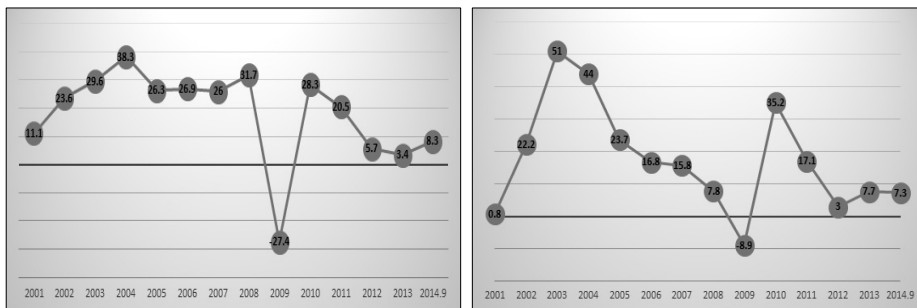
〈표 4〉 중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2014.9월 현재)

(단위: 백만 달러, 전년대비 증가율(%))

대상국/지역	수출	증가율	대상국/지역	수입	증가율
수출총액	1,697,180	5.1	수입총액	1,466,557	2.1
미국	285,735	8.3	한국	140,700	7.3
홍콩	252,019	-13.3	일본	121,389	4.1
일본	111,340	3.2	미국	114,430	8.1
한국	73,451	8.3	대만	111,424	-0.8
독일	53,917	11.0	독일	78,651	13.3
네덜란드	47,202	11.1	호주	70,714	5.5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net)

수출입 증가율을 보면, 2001년부터 중국은 한국과의 교역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수출이 증가하다가 금융위기 발생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0년부터 다시 한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였지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증가되지 않은 양상을 보였다. 또한 수입 증가율에서도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2001년부터 증가하다가 2003년을 정점으로 점차적으로 감소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에 급격히 감소현상을 보이다가 2010년도에 다시 급상승하였지만, 금융위기 이전만큼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지는 않았다.



(단위: %) (단위: %)  
 [그림 1] 중국의 대한민국 수출증가율 추이 [그림 2] 중국의 대한민국 수입증가율 추이  
 주: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로 연구자가 직접 작성하였음.

한국과의 품목별 수출입 현황을 보면, 2013년 말 기준으로 HS 2단위 85(전기기기제품)은 전년대비 13.0% 증가한 33,725백만 달러였고 2014년 9월 현재에도 수출품목 1위로서 전년동월(누계)대비 3.2% 증가한 26,599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또한 85 품목은 수입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2013년도는 전년대비 13.2% 증가한 73,967백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2014년 9월 현재에는 2.5% 증가한 54,669백만 달러를 보여주고 있다. 85 품목에 대한 중국과 한국과의 교역 결과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수출보다 더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동일한 품목이나 유사한 품목이 양 국가에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경쟁관계에 있거나 보완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경쟁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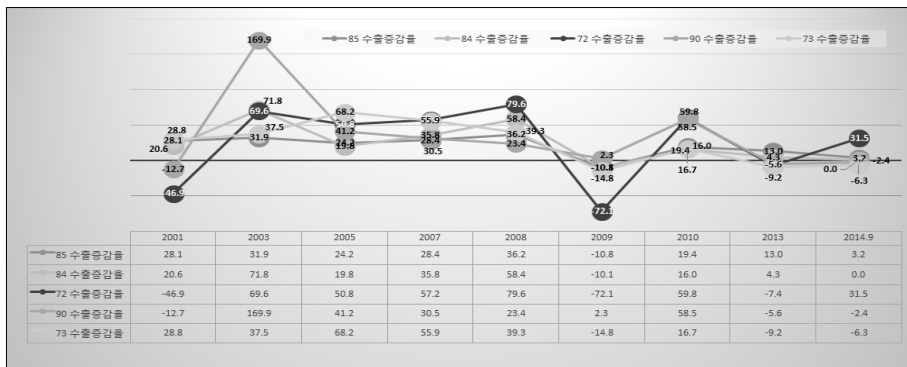
<표 5> 중국의 대한국 10대 수출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3						2014. 9월 현재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품목	금액	증가율	품목	금액	증가율	품목	금액	증가율	품목	금액	증가율
1	85	33,725	13.0	85	73,967	13.2	85	26,599	3.2	85	54,669	2.5
2	84	8,905	4.3	90	23,434	-5.3	84	6,793	0.0	90	16,874	-2.2
3	72	6,526	-7.4	84	15,573	10.0	72	6,366	31.5	84	12,940	11.7
4	90	4,150	-5.6	29	15,343	11.7	90	3,128	-2.4	29	10,734	-6.9
5	73	2,782	-9.2	39	12,397	6.9	73	1,997	-6.3	39	9,386	1.7
6	29	2,503	6.1	27	10,332	-10.4	29	1,922	3.9	71	8,746	918.4
7	62	2,017	16.3	87	5,169	16.3	62	1,719	11.3	27	7,248	-9.9
8	27	1,981	-8.6	72	3,962	-3.1	27	1,646	25.9	87	4,191	13.9
9	61	1,733	25.3	74	2,418	-9.3	61	1,644	37.5	72	3,305	12.6
10	28	1,637	0.4	71	1,938	1840.5	28	1,395	22.2	74	1,506	-20.2

주: HS code 2단위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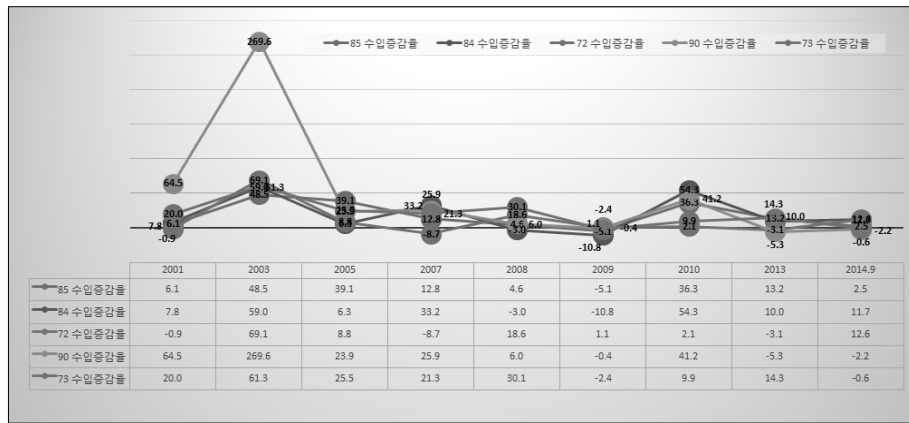
특히 1위부터 5위까지 해당되는 품목들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조사한 결과 전년대비 수출입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율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큰 폭으로 변화를 보였으나 2009년 이후 2014년 9월 현재까지 완만한 증감을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수출변화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변화율은 2003년도에 85단위만이 급격한 증가를 보였을 뿐 대부분의 1~5위까지의 품목들은 완만한 증감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즉 꾸준히 한국에서 본 품목들에 대한 수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중국의 대한국 품목별 수출증가율 추이

(단위: %)

주: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를 참고로 연구자가 직접 작성하였음.



(단위: %)

[그림 4] 중국의 대한국 품목별 수입증가율 추이

주: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를 참고로 연구자가 직접 작성하였음

## 2. 중국 경제 전망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전 세계가 경기침체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경제는 여전히 평균 7~8%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기관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장률을 보이는 데는 중국 내 실물경제(소비, 투자 등)의 회복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경색되었던 미국이 경기회복을 보이고 있는 것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연말 수요 증가로 인해 수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즉 중국의 적극적인 내수 확대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대외무역동향(<표2>참고)에서도 보았듯이 중국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경제성장률이 경착륙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그림 5]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 전망

주: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를 참고로 연구자가 직접 작성하였음.



주요 투자은행(IB)들은 2014년 올해 중국 경제가 약 7.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표치는 중국이 예상한 목표치보다 낮은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망은 2013년도에 중국 경제를 전망했던 목표치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즉 2013년 당시 주요 기관들이 제시한 중국경제전망은 8%내외의 성장으로 예측하면서 완만한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전망을 내놓은 기관들은 IMF를 비롯하여 세계은행, OECD, ADB, 사회과학원, 중국투자공사, 골드만삭스 등이었는데, 대부분의 기관들이 8%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했고 노무라연구소만 유일하게 7.7%를 예측하였다. 그러나 2013년도는 7.7%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면서(그림6참고), 노무라연구소 전망치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발표와 상이한 결과가 나왔다.

마찬가지로 2014년도와 2015년도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한 주요 기관들은 중국이 7%이상 목표치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나 노무라연구소만 2015년도에는 6.8%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약 노무라연구소의 전망치에 근접하게 된다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7%대가 무너지면서 경기하방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표 6〉 주요 기관 경제성장률 전망치

주요 기관	날짜	경제성장률 전망치(%)
IMF	13년/4월	8.0
World Bank	13년/4월	8.3
OECD	13년/2월	8.5
ADB	12년/10월	8.1
사회과학원	12년/12월	8.2
중국투자공사	12년/11월	8.1
골드만삭스	12년/11월	8.1
노무라	12년/11월	7.7

자료: 주중국대사관

〈표 7〉 주요 투자은행(IB)의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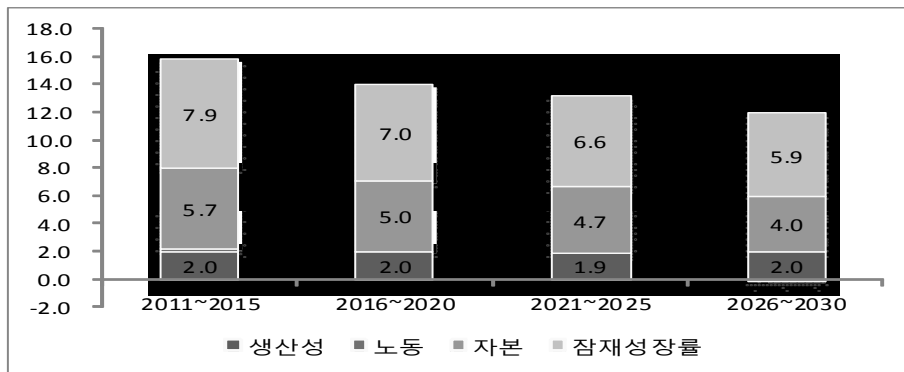
주요 투자은행	날짜	2Q	3Q	4Q	2014	2015
골드만삭스	14년/10월	-	-	-	7.3	7.1
크레딧스위스	14년/9월	7.3	7.4	7.4	7.3	7.8
JP 모간	14년/10월	7.4	7.2	7.3	7.3	7.3
모건 스탠리	14년/9월	7.5	7.2	7.2	7.3	7.1
노무라	14년/10월	7.4	7.2	7.6	7.4	6.8
스탠다드차타드	14년/10월	7.4	7.5	7.5	7.4	7.0
투자은행 평균		-	7.24	7.25	7.34	7.10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IIT Trade Brief, 2014.10.22. No.61 재인용

이상과 같이 중국경제에 대해 중장기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는 다수의 학자들은 향후 두 자리 고속성장을 할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주중국대사관 홈페이지)2) 즉 도시화의 진전과 중서부지역발전을 통한 내수확대 잠재력, 제조업의 수출경쟁력, 기술혁신 움직임 등을 감안할 때 중국이 소위 ‘중진국 함정’에 처할 위험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10~20년간 8~9%대의 중·고속 성장을 거론하는 학자가 있기는 하

2) 주중국대사관, 중국경제개요, 2014.

지만, 주요 기관들은 잠재성장률을 대체로 6~8%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단위: 잠재성장률 %, 기여도 %p)

[그림 6] 중국의 잠재성장률 전망치

자료: 주중국대사관, 2014

### Ⅲ. 중국경제의 성장둔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1. 중국의 경제성장을 둔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국경제 성장은 앞서 경제성장률 추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매년 평균 10~11%이상 성장률을 보이다가 2012년부터 7.7%로 하락, 2013년도 7.7, 2014년 9월 현재 7.4%로 또 다시 하락하면서 성장둔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성장둔화는 직간접적으로 한국의 수출입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한국과의 무역에서 저조한 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2001년부터 한국과 중국의 총 수출입액에 대한 해당 국가 수출입 비중을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수출은 200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시기에 한차례 감소하였지만 2009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수출은 평균적으로 4%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5.2% 비중을 차지하면서 정점을 찍고 2009년부터 점진적으로 감소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수입을 경우에도 한국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008년까지 증가하다가 2009년부터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009년도에 한차례 증가하다가 2010년부터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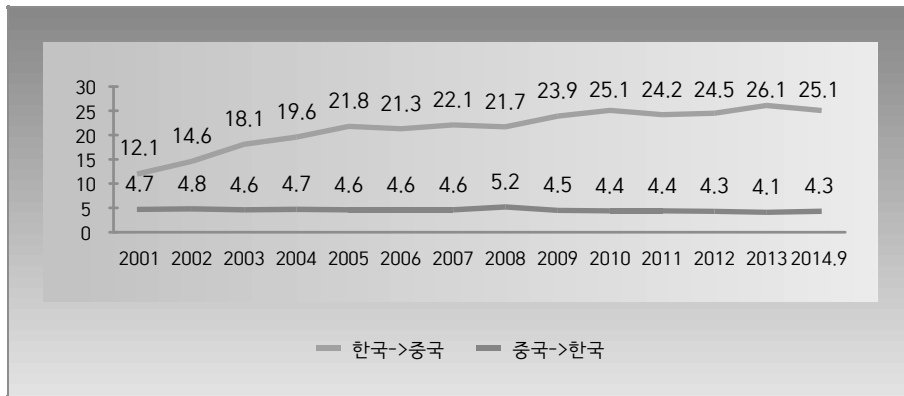
<표 8> 한국과 중국 간 수출입 비중 추이

(단위: %)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수출	한국→중국	12.1	14.6	18.1	19.6	21.8	21.3	22.1	21.7	23.9	25.1	24.2	24.5	26.1
	중국→한국	4.7	4.8	4.6	4.7	4.6	4.6	4.6	5.2	4.5	4.4	4.4	4.3	4.1
수입	한국→중국	9.4	11.4	12.3	13.2	14.8	15.7	17.7	17.7	16.8	16.8	16.5	15.5	16.1
	중국→한국	9.6	9.7	10.4	11.1	11.6	11.3	10.9	9.9	10.2	9.9	9.3	9.2	9.2

주: 한국 수출입은 14년10월 누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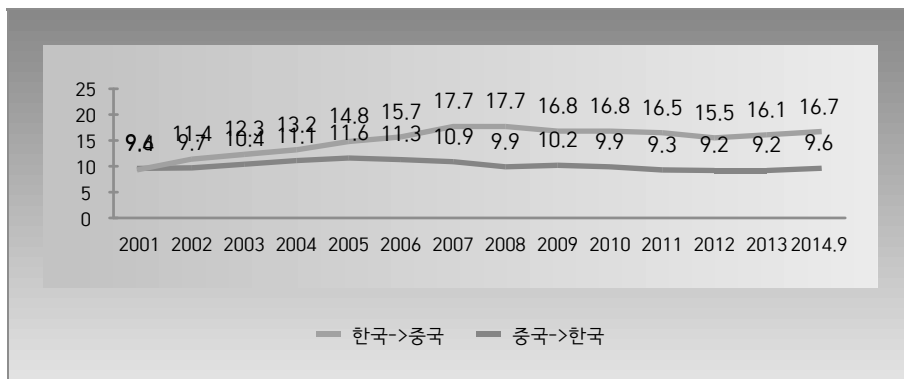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net)



(단위:%)

[그림 7] 한국과 중국 간 수출비중 추이

주: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를 참고로 연구자가 직접 작성하였음.



(단위:%)

[그림 8] 한국과 중국 간 수입비중 추이

주: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를 참고로 연구자가 직접 작성하였음.

이상과 같이 양 국가 간의 수출입 비중은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 경제의 최근 변화로 인해 한국과의 수출입에서도 다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과의 수출입에서 특히 가공무역 비중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2. 가공무역 비중 감소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1) 중국의 가공무역 비중 추이

중국은 WTO에 가입한 이후인 2001년부터 일반무역, 가공무역, 그리고 기타무역에 대한 수출입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부터는 일반무역의 수출입 비중과는 달리 가공무역의 수출입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가공무역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수출은 평균 54.2%를 유지하였고 수입은 평균 40.0%를 유지하면서 무역액비중도 평균 47.5%로써 크게 감소하지도 증가하지도 않은 상태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2008년부터 수출비중은 50% 이하로 감소하였고 수입비중은 33% 미만으로 감소하면서 무역비중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9.3%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무역액 비중 평균보다 8.2%가량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가공무역의 감소 추세는 중국과 가공무역에 대한 수출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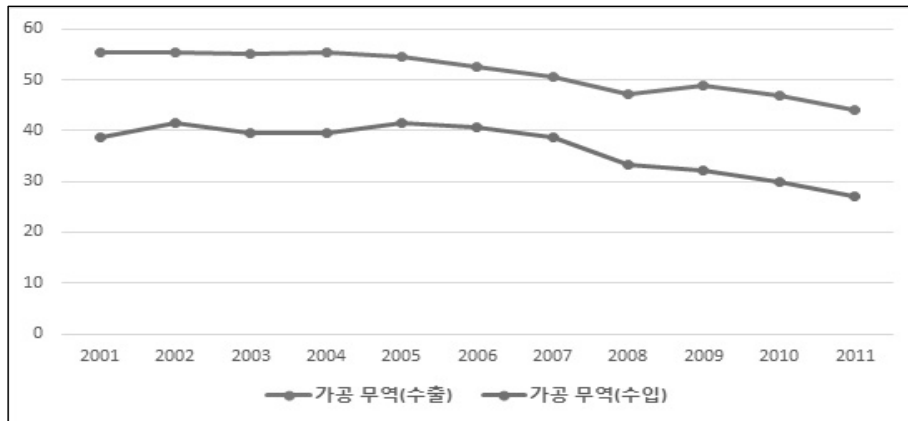
〈표 9〉 중국의 무역방식별 수출입과 무역액 비중 추이

(단위: %)

연도	수출비중			수입비중			무역액비중		
	일반무역	가공무역	기타무역	일반무역	가공무역	기타무역	일반무역	가공무역	기타무역
2001	42.05	55.41	2.55	46.58	38.58	14.83	44.21	47.37	8.42
2002	41.83	55.26	2.91	43.74	41.40	14.86	42.74	48.67	8.59
2003	41.54	55.19	3.27	45.47	39.48	15.05	43.45	47.57	8.99
2004	41.06	55.28	3.66	44.21	39.50	16.28	42.59	47.61	9.80
2005	41.35	54.66	3.99	42.37	41.52	16.11	41.82	48.56	9.62
2006	42.95	52.67	4.37	42.08	40.62	17.30	42.56	47.25	10.18
2007	44.24	50.62	5.14	44.84	38.54	16.63	44.50	45.31	10.19
2008	46.33	47.19	6.48	50.51	33.41	16.08	48.18	41.10	10.72
2009	44.09	48.84	7.07	53.13	32.04	14.83	48.21	41.18	10.60
2010	45.67	46.92	7.41	55.10	29.90	15.00	50.10	38.93	10.97
2011	48.19	44.06	7.75	57.69	27.03	15.28	52.73	35.93	11.35

주: 김화섭외(2013), p.61

자료: 중국해관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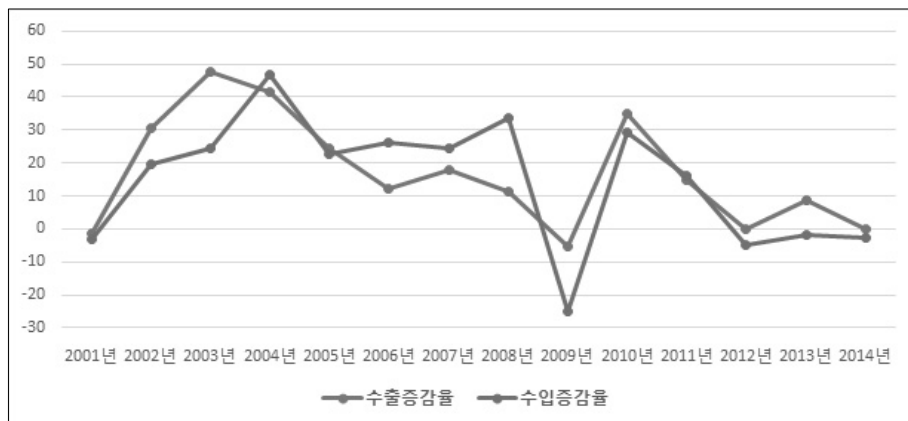
[그림 9] 중국의 수출입 가공무역 비중 추이

주: <표9> 자료로 연구자가 직접 작성하였음.

중국의 가공무역이 감소하게 된 원인을 요약한다면, 첫째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이 과도하게 수출과 투자에 의존하는 무조건식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소비를 중시함에 따라 가공무역 비중이 감소하였다. 즉 이러한 변화는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을 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에 기인한 영향이다. 둘째, 개혁개방초기부터 대량의 실업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가공무역을 통한 고용인원이 증가하였는데, 저렴한 노동임금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임금 상승 기조를 유발함에 따라 비교우위 악화를 초래하여 가공무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중국의 가공무역은 저부가가치 품목을 시작으로 점차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으로 변화하였지만, 여전히 부가가치가 낮은 단계에 집중된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경제 성장을 함에 따라 노동집약도가 높고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이윤도 적은 가공무역은 국가 내 산업발전에 대한 기여도도 낮아질 것이다. 넷째, 중국의 가공무역에는 외자기업들의 기술전수와 중국의 기술연구 개발능력 제고를 수반하게 되는데, 가공무역 사슬구조상 일정 정도 수익보장으로 인해 중국 내 기업들의 자체적 기술개발에는 소홀하여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섯째,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중국에 대한 반덤핑과 반보조금 조사가 더욱 증가하였고 그로 인해 중국의 가공무역기업은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즉 1995년부터 최근 2010년까지 중국은 무역마찰 최다국으로 부상하였고, 이러한 부담은 치열한 21세기 세계 경제에 중국의 가공무역이 심각한 보호무역주의에 직면해 있음을 의미한다. 여섯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가공무역 수출입 총액과 비중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감소하였다. 2000년대 중반부터 원자재(17.4%→30.5%)와 소비재(3.5%→4.1%)의 비중은 증가한 반면 중간

재(59.2%→49.2%)와 자본재(19.8%→16.1%) 비중은 감소하였다. 따라서 평균 50%이상 수출증가에 효자노릇을 하던 중국의 가공무역이 2008년을 기점으로 50%미만으로 감소함과 동시에 수입에서도 감소추세를 보이게 되었다.(김희섭외(2013))<sup>3)</sup>

이와 같이 중국의 가공무역 비중 감소는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줄 것이다. 우선, 중국의 가공무역기업이 주로 외자기업 위주에서 중국 국내기업 참여확대로 바뀔 경우 한국의 가공무역에 관련한 기업, 특히 한국의 중소기업에게 경영악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결국 한국을 비롯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가공무역에 대한 입지가 서서히 줄어들 것이고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둘째, 중간재의 수입을 줄이고 국산화 비율을 제고하겠다는 중국의 정책방향을 추진하게 된다면 한국의 원자재 수출에 비상이 걸리게 될 것이다. 현재 한국은 중국으로의 원자재 수출이 2001년도에 18,190백만 달러에서 2011년 말 기준 134,185백만 달러로 10년 동안 상당한 증가를 하였다. 그러나 2009년에 급격한 감소를 보이면서 증가폭이 다소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10] 한국의 중국으로의 원자재 수출입 증감률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net)

셋째, 가공무역 감소현상은 중국의 교역구조가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대중국 교역구조를 적절히 변화시켜 대응하지 않는다면 차후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공무역비중이 감소하면서 금속제품과 특수기계 등 기존 내수용도로 주로 수출되었던 중간재는 중국 전체 시장 평균보다 내수용도로 전환폭이 컸지만, 반도체와 컴퓨터 부품, 전기전자기기 등 기존 수출용도로 주로 사용되었던 중간재는 내수용도로 전환이 제

3) 김희섭외, “중국 가공무역의 구조변화와 정책전개방향”, 산업연구원, 정책자료 2013-190, pp.76-81.

한적이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경제성장률 하락과 가공무역비중 감소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수출입 비중에서 보다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어떤 품목에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양 국가 간 품목별 경합관계에 따른 영향을 분석을 통해 그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 3. 한국과 중국 간 품목별 경합관계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1) 분석범위와 방법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수출입 비율이 다소 감소하는 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은 크게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는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과 중국 간에 교역되는 품목들에 대한 경합관계를 살펴보면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품목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과 중국의 수출입 품목 중 1위에서 10위까지의 품목군들은 서로 유사하게 수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품목들이 서로 수출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서로 보완관계에 있거나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과의 교역에서 서로 유사한 품목들이 경합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즉 중국과 한국과의 경합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무역수지기여도 지수, 무역특화도지수, 국별 현시비교우위지수를 활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분석범위는 2001년 중국이 WTO 가입한 이후부터 2013년 현재까지로 하고, 분석대상은 HS 2단위 품목4)들 중 1위에서 5위까지 품목들을 HS 4단위로 세분류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무역수지기여도지수(CTB: Contribution to the Trade Balance)는 한 국가의 국제 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 j 품목의 실제 교역수지와 j 품목의 이론상 교역수지를 비교하여 j 품목의 교역수지에 대한 구조적 기여 정도를 측정하게 하는 것이다. 국가 간 비교할 때는 정규화를 위해 GDP로 나누어 사용하게 된다.

즉 CTB지수 = 
$$\left[ \frac{(X_j - M_j) - (X - M)(X_j - M_j)}{(X + M)} \right] / GDP$$
 로 나타난다. 이때 CTB 지수가 양(+)이면, j 품목이 평균이상의 기여를 하는 것이고, 적자를 감소시키거나 흑자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무역특화도지수(TSI: Trade Specialization Index)는 ‘무역경쟁우위지수’ 또는 ‘무역경쟁

4) HS2단위 중 85 전기기기와 부분품, 84 기계류 및 부분품, 72 철강제품, 90 정밀기기, 73 철강과 그 제품, 39 플라스틱 제품 등을 한정해서 분석함

력지수'라고도 한다. TSI는 한 상품의 총 수출액과 총 수입액, 그리고 전체 무역액을 이용하여 상품의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즉 한 국가의 특정 상품의 전체 수출입액에서 수출입 차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것으로 수치가 클수록 경쟁우위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TSI_{jk} = \frac{(X_{jk} - M_{jk})}{(X_{jk} + M_{jk})}$  이고,  $X_j$ 는 j상품의 수출액,  $M_j$ 는 j상품의 수입액을 의미한다. 만약  $TSI > 0$ 이면, 이 국가는 j 상품의 순수출국으로써 j 상품의 생산효율이 전 세계 평균 수준보다 높고 무역우위를 갖췄다고 할 수 있으며 수치가 클수록 우위도 크다는 것이다. 반대로  $TSI < 0$ 이면, 이 국가는 j 상품의 순수입국으로써 j 상품의 생산효율이 전 세계 평균 수준보다 낮고 무역우위를 갖추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TSI = 1$ 이면 완전수출특화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TSI = -1$ 이면 완전수입특화상태를 나타낸다. 따라서 TSI는 구체적인 업계의 경쟁우위를 분석하는데 주로 이용되고 있다.(강점모·원상호(1998))<sup>5)</sup>

셋째 국별 현시비교우위지수(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는 한 나라의 국제시장에서의 점유율에 의거하여 해당 산업의 경제우위 확보여부를 추측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RCA는 세계 전체 수출시장에서 특정 상품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특정국의 수출에서 동 상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사이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RCA > 1$ 이면, 이 국가의 특정상품은 현시적인 비교우위를 갖추고 있고 수출 경쟁력이 비교적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RCA < 1$ 이면, 이 국가의 특정상품은 현시적인 비교우위를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수출 경쟁력 역시 비교적 약하다고 할 수 있다.

RCA 지수의 계산 공식은  $RCA = (X_{ij}/X_{it}) / (X_{wj}/X_{wt})$  와 같으며, 이 중에  $X_{ij}$ 는 i국가 j상품의 수출가치,  $X_{it}$ 는 i국가의 수출총액,  $X_{wj}$ 는 전 세계 j제품의 수출총액,  $X_{wt}$ 는 전 세계 수출총액을 의미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세계시장에서의 경합관계보다는 해당 국가 시장에서 해당 품목들이 어느 정도 경합관계를 보는 것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별 현시비교우위지수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of Country ; RCAC)란,  $RCAC_{ij}^k = \frac{X_{ij}^k / X_{ij}}{M_{jw}^k / M_{jw}}$  로써 여기서,  $X_{ij}^k$

는 i국가 k산업의 j국가에 대한 수출액,  $X_{ij}$ 는 i국가의 j국가에 대한 총수출액,  $M_{jw}^k$ 는 j국가 k 산업에 대한 대 세계 수입액,  $M_{jw}$ 는 j국가의 총수입액)는 0보다 큰 값을 가진다.(모수원·이광배(2013))<sup>6)</sup>

5) 강점모·원상호, “동북아 국가들이 수출 비교우위분석”, 경제학연구, 제49집 제45호.

6) 모수원·이광배, “한국의 대중 수출경쟁력 행태분석”, 무역연구 제9권 제4호, p.387, 2013.9.



## 2) 분석결과

### (1) CTB 분석결과

한 국가의 국제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한 CTB 분석 결과 먼저, 한국은 5개의 HS 코드 품목들 중 85(전자기기제품), 84(기계류) 등은 양(+)의 값을 가지는 반면 72(철강), 73(철강 및 그 제품) 등은 음(-)의 값을 도출하였다. 90(정밀기기)은 2001년과 2002년에 음(-)의 값을 나타낸 이후 2013년까지 양(+)의 값을 나타내었다. 즉 85, 84, 그리고 90 품목들은 한국의 교역수지에 평균 이상의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72와 73 품목들은 한국의 교역수지에 기여를 하지 못하면서 국제 경쟁력에도 큰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한국의 CTB 분석 결과

HS code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85	0.0008	0.0034	0.0045	0.0053	0.0077	0.0054	0.0068	0.0054	0.0078	0.0098	0.0066	0.0122	0.0160
84	0.0017	0.0038	0.0070	0.0081	0.0053	0.0046	0.0028	0.0027	0.0027	0.0050	0.0050	0.0027	0.0035
72	0.0015	0.0016	0.0027	0.0009	-0.0002	-0.0019	-0.0044	-0.0107	-0.0007	-0.0022	-0.0035	-0.0030	-0.0023
90	-0.0002	-0.0002	0.0005	0.0025	0.0048	0.0047	0.0070	0.0105	0.0137	0.0160	0.0154	0.0158	0.0134
73	-0.0001	-0.0001	-0.0001	-0.0001	-0.0004	-0.0009	-0.0014	-0.0023	-0.0020	-0.0021	-0.0023	-0.0025	-0.0019

다음으로, 중국은 85, 84, 90 품목들에 대해서는 음(-)의 값이 도출되었고, 72, 73 품목들은 양(+)의 값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값은 한국과 반대의 부호를 나타내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85, 84, 90 품목들이 국제경쟁력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면서 72, 73 품목들은 국제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72, 73 품목들은 중국의 교역수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표 11〉 중국의 CTB 분석 결과

HS code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85	-0.0021	-0.0038	-0.0054	-0.0060	-0.0072	-0.0070	-0.0056	-0.0037	-0.0035	-0.0045	-0.0041	-0.0041	-0.0041
84	-0.0010	-0.0014	-0.0020	-0.0020	-0.0016	-0.0015	-0.0015	-0.0005	-0.0004	-0.0010	-0.0011	-0.0006	-0.0007
72	-0.0010	-0.0009	-0.0014	-0.0008	-0.0003	0.0004	0.0011	0.0019	0.0000	0.0003	0.0005	0.0003	0.0003
90	-0.0002	-0.0007	-0.0025	-0.0043	-0.0043	-0.0037	-0.0035	-0.0028	-0.0026	-0.0032	-0.0027	-0.0023	-0.0020
73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2	0.0003	0.0003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 (2) TSI 분석 결과

TSI는 한 국가의 특정상품의 전체 수출입액에서 수출입 차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며, 수치가 클수록 경쟁우위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TSI는 구체적인 업계의 경쟁우위를 분석하는데 이용되는 지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TSI 분석 결과 완전 수출특화나 완전 수입특화를 보이는 품목들은 없지만, 85, 84, 90 품목들은 한국의 순수출국으로 생산효율이 전 세계 평균 수준보다 높고 무역우위를 갖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90 품목은 2005년 이후 평균 0.7이상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서 85, 84 보다는 더 생산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72, 73 품목들은  $TSI < 0$  이고, 특히 72는 2005년 이후부터 음(-)의 값을 보여주고 있어서 생산효율이 전 세계 평균 수준보다 낮고 무역우위를 갖추지 못한 수입특화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표 12〉 한국의 TSI 분석 결과

HS code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85	0.066	0.211	0.223	0.218	0.271	0.178	0.187	0.117	0.176	0.205	0.136	0.240	0.293
84	0.278	0.456	0.544	0.512	0.345	0.285	0.190	0.148	0.159	0.247	0.243	0.152	0.202
72	0.509	0.525	0.548	0.127	-0.027	-0.238	-0.457	-0.594	-0.080	-0.249	-0.331	-0.341	-0.299
90	-0.224	-0.197	0.248	0.600	0.719	0.692	0.731	0.729	0.792	0.760	0.713	0.713	0.719
73	-0.144	-0.117	-0.068	-0.089	-0.309	-0.493	-0.594	-0.569	-0.486	-0.560	-0.601	-0.642	-0.560

중국의 경우 72, 73 품목들이 순수출국으로 생산효율이 전 세계 평균 수준보다 높고 무역우위를 갖춘 반면 85, 84, 90 품목들은 반대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72, 73 품목들의 값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2010년이 지나서야 값이 높아지고 있다.

〈표 13〉 중국의 TSI 분석 결과

HS code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85	-0.370	-0.481	-0.525	-0.473	-0.516	-0.496	-0.446	-0.334	-0.361	-0.417	-0.401	-0.373	-0.374
84	-0.491	-0.539	-0.511	-0.410	-0.359	-0.373	-0.365	-0.137	-0.133	-0.269	-0.322	-0.247	-0.272
72	-0.639	-0.611	-0.610	-0.242	-0.084	0.131	0.383	0.545	-0.031	0.190	0.281	0.266	0.245
90	-0.580	-0.750	-0.811	-0.881	-0.865	-0.829	-0.824	-0.798	-0.793	-0.770	-0.713	-0.698	-0.699
73	-0.039	0.009	-0.071	-0.069	0.078	0.263	0.375	0.405	0.346	0.372	0.419	0.470	0.376

**(3) RCAC 분석 결과**

RCAC 분석 결과 한국은 85 품목은 2007년 이후부터 1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한국의 여타 산업에 비교해서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4 품목은 2003년부터 2006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중국시장에서 해당 품목이 비교우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90 품목은 2005년부터 1보다 큰 값을 도출하였고 2009년부터 2이상의 값을 도출하면서 중국 시장에서 비교우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2, 73 품목들도 2001년과 2002년도를 제외하면 중국 시장에서 비교우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한국의 RCAC 분석 결과

HS code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85	0.817	1.054	0.986	0.948	1.028	0.964	1.124	1.175	1.164	1.251	1.265	1.396	1.458
84	0.708	0.911	1.157	1.198	1.075	1.125	0.935	0.910	0.883	0.997	1.030	1.955	1.113
72	0.532	1.376	1.421	1.620	1.553	1.780	1.500	1.825	1.504	1.789	1.984	2.113	2.266
90	0.226	0.224	0.400	0.755	1.141	1.166	1.603	1.963	2.576	2.817	3.008	3.023	2.688
73	0.911	0.983	1.082	1.104	0.870	0.747	0.804	1.011	1.296	1.219	1.220	1.176	1.307

중국의 경우에도 84 품목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1이하의 값을 도출하면서 한국시장에서 비교열위에 있었지만, 2008년 이후부터 1이상의 값을 도출하면서 비교우위가 높게 나타났다. 72 품목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1이하의 값을 도출하였지만, 2004년부터 1이상의 값을 도출하면서 비교우위를 갖추게 되었고, 73 품목은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이상의 값을 도출하였고 한국 시장에서 꾸준히 비교우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5〉 중국의 RCAC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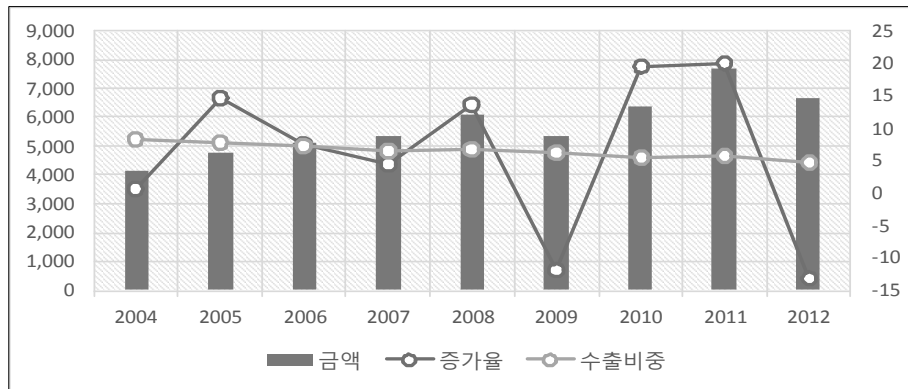
HS code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85	0.968	0.958	0.952	1.179	1.258	1.419	1.493	1.762	1.886	1.961	2.128	2.646	2.654
84	0.503	0.509	0.703	0.938	0.920	0.837	0.861	1.213	1.316	1.132	1.126	1.091	1.067
72	0.906	0.716	0.814	1.451	1.736	2.011	2.114	2.274	1.261	1.533	1.876	1.754	1.822
90	0.226	0.286	0.543	0.435	0.476	0.569	0.795	0.864	1.084	1.226	1.569	1.400	1.370
73	1.563	1.693	1.969	1.922	2.226	2.506	2.416	2.403	2.168	2.366	2.584	2.328	1.858

## IV. 중국의 성장 둔화에 따른 한국 경제의 대응방안

### 1. 중국 내수 시장 진출 방안

한국이 중국으로의 소비재 수출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12.0%까지 감소하였다. 즉 한국의 중국으로 총 수출액은 늘어났는데 반해 소비재 수출은 총 수출액만큼 늘어나지 않아 수출비중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중국 시장으로의 소비재 수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중국의 성장 둔화로 인한 한국 경제의 직접적인 악영향을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의 독특한 관세구조가 최종 소비재와 일부 육성 산업의 수입품에 고관세 집중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원활한 내수시장 확보를 위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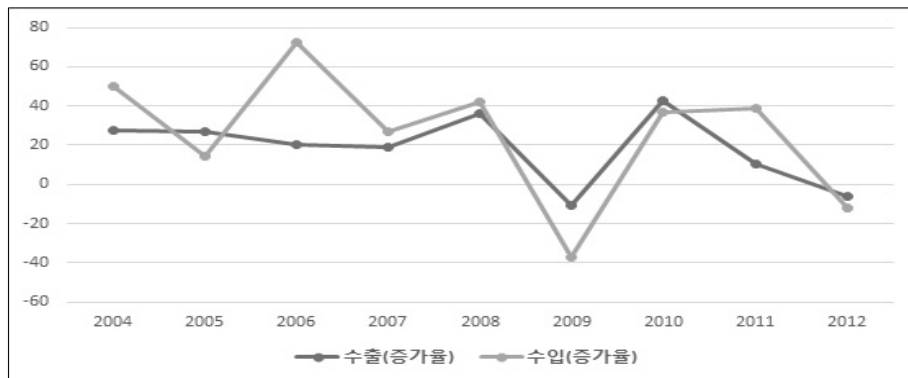
[그림 11] 한국의 대중국 소비재 수출 현황

주: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를 참고로 연구자가 직접 작성하였음.

### 2. 중국 외 신흥 시장 개척 방안

중국과 가장 유사한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중국보다 모든 부분에서 비교열위를 갖고 있는 인도시장을 개척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제조업 비중 55%, 서비스업 비중 35%라고 한다면, 인도는 정반대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인도는 중국의 10년 뒤 경제 성장을 따라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인도시장은 10%가량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면서 중국시장을 향해 맹추격을 하고 있으므로 중국을 견제하면서 인도시장을 신흥시장으로

개척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인도는 한국의 9위 수출 국가이고,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를 맺고 있다. 인도와의 교역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미국, 일본, 중국이 인도시장을 겨냥하고 있으므로 한국도 서둘러 진출하여 시장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림 12] 한국의 대인도 수출입 증감율 추이

주: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를 참고로 연구자가 직접 작성하였음

### 3. 신산업 육성 방안

21세기는 지식서비스 산업의 육성에 모든 국가들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서비스 산업은 여전히 미국시장이나 일본시장에서 경쟁성이 낮은 대표적인 산업이므로 이들 산업에 대한 육성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서비스 산업은 아직까지는 한국과 경합관계를 보이고 있을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한국 역시 서비스 산업에 대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이 먼저 서비스 사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한 후 특화된 품목을 중국으로 진출한다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중국 시장으로 진출할 업종을 살펴보면, 사업서비스를 비롯하여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과 같은 전문 서비스와 교육 서비스, 의료·보건, 사회보장 등과 같은 생활관련 서비스 부문이 될 것이다. 최근 한중 FTA가 체결되었기 때문에 서비스 업종개방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존의 한국의 대중국 무역 품목군인 전기전자기기, 정밀기기, 기계류 등의 부품 위주의 중간재 및 원자재 위주였다면, 중국 경제정책에 맞는 비즈니스모델로 변화해야 할 것이

다. 중국과의 수출입 품목과 경합관계를 보더라도 원자재 및 중간재 위주의 교역이 전체 수출입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서비스 산업으로 선회합과 동시에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 V. 결 론

본 연구는 중국 경제의 최근 성장률 둔화와 관련하여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였다. 우선 경제성장률 둔화 추이를 살펴보았고 다음으로는 가공무역 비중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수출입 품목 중 1~5위 군에 해당되는 품목들에 대해 경쟁력 분석을 하였고, 그로 인해 경쟁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한국 경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첫째, 중국의 내수 시장에 직접적으로 파고들어 소비재 수출을 통한 내수 시장 확보를 제시했다. 둘째 중국이 한국과 1위 수출입 국가이지만, 신흥 시장 개척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당 국가로는 중국과 가장 닮은 시장이 인도였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장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셋째, 지식 서비스 산업과 같은 신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최근 중국과 FTA를 체결하였다. 향후 한중간 교역규모는 더욱 더 커질 것이고, 이로 인해 더욱 친밀도가 커질 것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 경제 성장률 변화에서도 보았듯이 성장둔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한국이 경험할 경제적 쇼크는 이전보다 더 커지게 될 것이다. 한중 FTA 체결로 인해 원활하고 더욱 더 큰 무역증대를 확보할 수 있겠지만, 중국 경제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중국에 편중되어 교역구조를 이어갈 것이 아니라 제3의 시장도 살펴보고, 주력 산업에 대한 변화도 모색하는 것이 주요하겠다.

## 참 고 문 헌

- 강정모·원상호, “동북아 국가들의 수출 비교우위분석”, 경제학연구 제49집 제4호.
- 김화섭·이진면·리소영(李紹榮), “중국 가공무역의 구조변화와 정책 전개방향”, 정책자료 2013-190, 산업연구원, 2013.10.
- 대한상공회의소, “중국의 주요 경제 환경 변화와 기업의 대응”, KCCI 해외 경제동향 No.2, 2014.8.
- 모수원·이광배, “한국의 대중 수출경쟁력 행태분석”, 무역연구 제9권 제4호, p.387, 2013.9.
- 엄정명, “중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리코노믹스”, SERI 경제포커스, 제426호, 2013.9.3.
- 유진석, “소비대국 중국, 그 중심에 있는 신세대”, SERI 경제포커스, 제424호, 2013.7.30.
- 이봉걸,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는 완화되었으나 불안감은 여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회, No.61, 2014.10.22.
- 이태환, “한중일 교역구조 재평가 -부가가치 기준 무역자료를 바탕으로”, SERI 경제포커스, 제427호, 2013.9.17.
- 중국산업브리핑, “향후 10년 전망 : 잠재성장률 하락, 신성장 단계 시작”, 해외현지리포트, 한국무역협회 북경사무소, 제13-72호, 2013.5.13.
- , “중국의 수출경쟁력 변화와 향후 수출 추이 전망”, 해외현지리포트, 한국무역협회 북경사무소, 제13-76호, 2013.6.28.
- , “12·5 국가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계획 : 개요 및 해설”, 해외현지리포트, 한국무역협회 북경사무소, 제12-27호, 2012.7.30.
- , “2013년도 3분기 중국무역동향 및 전망”, 2013.10.
-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중국의 중국산 역수입 현황”, 2013.9.
-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http://chn.mofa.go.kr>
- 중국 국가 외환 관리국, <http://www.safe.gov.cn/>
-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http://www.kita.net)
- IMF, [www.imf.org](http://www.imf.org)
- WTO, [www.wto.org](http://www.wto.org)

## ABSTRACT

# Effect Analysis of Korea Economic about the Growth Slowdown of China Economic Under FTA

Kyoung-Hee Kim\* · Seung-Gyun Yoo\*\*

Korea and China signed an FTA at November 10, 2014. The entry of China – the factory of the World – can be more active and easier. But Recently, China's economic growth is slowdown, and it began to emerge as a voice of concern. Therefore I analyze China's economic slowdown is the impact on Korea's economy in this study.

This study presented current trends and future prospects on China's economic situation. The changes of China's economic growth are the reduction of economic growth rate, falling proportion of processing trade, and the competition relationship of two countries. So they will be analyzed on this study.

And this study presents ways that Korea economy reacts for China's economic growth slowdown. Trade statistics system of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KITA) is leveraged for this analysis. For competition relationship analysis, I analyze to use Contribution to the Trade Balance, Trade Specialization Index,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of Country.

**Key Words** : The Growth Slowdown of China Economic, Processing trade weight, Contribution to the Trade Balance, Trade Specialization Index,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of Country

---

\* Professor, Department of Global & Management Trade, Shinhan University(First Author)

\*\* Visiting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Dongguk University(Correspondence Author)